

[2017 가요계 연말결산] '꽃길' 걸은 新 음원 강자들



2017년 가요계에도 어김없이 '스타'가 등장했다. 특히 별다른 방송 활동 없이 음원 차트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가수들이 눈길을 끌었다.

박원·'정주행' 헤이즈·'음색퀵' 수란 등 방송 활동 없이 음원 중심 존재감 드러내

데뷔한 박원은 지난 2015년 솔로 전향 후 무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낸 정규 2집 '1/24'의 타이틀곡 '노력'으로 화제를 받았다.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에서 K팝 가수상을 받기도 했다. 아이돌 중에서는 혼성그룹 카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데뷔 전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누리고 국내에 '역수입' 된 이들은 정식 데뷔 직후 '라이징 스타' 반열에 이름을 올리며 승승장구 중이다.

강호동의 전성기는 ing... '1박2일' 시절 부럽지 않다



한때 있었던 '위기설'이 무색하리만큼 요즘 방송에서 강호동이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내성적 PD가 이었던 KBS 2TV '해피선데이 1박 2일'은 예능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국민 예능'으로 자리잡았다.

강호동은 상황에 따라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때로는 철없는 형처럼, 때로는 편안한 친구 같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특히 여행을 떠난 곳에서 만난 여리신들과 마지 원대 앞났던 시이처럼 친구

이지않고 방송 트렌드에 맞게 케이틀과 종편으로도 발을 뻗었다. 강호동의 부활 신호탄을 쏜 것은 '1박2일'을 함께했던 나영석PD, 이승기, 이수근, 은지원 등과 함께 한 '신서유기'다.

고 강호동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지않은 '소통왕'의 면모로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주고있다. 강호동의 과한 리액션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방송 경험이 전문한 비연예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끼줍쇼' 특색상 이런 강호동의 리액션이 있기에 프로그램이 생동감있게 풀아가는 것도 사실.

'언터처블', 반전 소름 박근형 핵심 키



'언터처블' 박근형이 살아있었다는 반전이 공개되며 안방극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후반 핵심 키로 떠올랐다.

사실을 전제했다.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물고 살 테니 진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는 것. 이 말을 전해 들은 진구는 요절했다.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음력 11월 1일). A grid of 12 daily fortune tellings for different zodiac signs, each with a small illustration and a short text snippet.